

唐代 藝術이 反映된 現代 패션에 關한 研究

- 1998년부터 2000年 Collection을 中心으로 -

簡鎬涉* · 徐倫希

同德女子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助敎授, 同德女子大學校 大學院碩士 衣裳디자인學科

A Study on the Modern Fashion Reflected Art of the Tang Dynasty

Ho Sup Kan* and Yun Hee Suh

Prof.,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MA.,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new orientalism fashion through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analyze the art of the Tang dynasty, China. Tang dynasty has high culture, economy, polity and art. Also the character of Tang's culture is very international. Therefore that point is coincide with fusion culture in the early 2000's. As a method of accomplishing this research, the documents and fashion magazines related to the art and fashion were examined. Through analyzing the art in the Tang's related to fusion culture, reach a conclusion that the modern fashion has four characters.

1. The cause of high culture and economy, the trend of fashion was decorative
2. The cause of realism, the trend of fashion were modern and simple.
3. The cause of rhythmical line, the trend of fashion had natural drape.
4. The cause of globalism, the trend of fashion mixed east with west

This research keep going for showing new orientalism and coinciding with 21th century's trend

I. 서론

동양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국제화는 세기말에 등장한 동양의 禪이 theme인 ZEN(禪) Style과 최근 동서양 문화의 fusion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에 있어 아르누보의 theme였던 Chinism과 70년대 경제 강대국으로 등장한 일본을 theme로 한 Japanism에 이어 새로운 21C Orientalism을 제시해 주었으며, 동서양 문화의 mix가 중요한 문화적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 실크로드 지역의 중앙

에 위치해 있던 중국의 당(唐)대 예술은 당대의 독자적인 문화의 특수성에 서양의 국제적인 보편성이 융합된 동·서양 문화의 총체화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당대 예술의 문화사적 연구를 통해 그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여 시시각각 다변하고 있는 현대 패션계에 다양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디자인 모티브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Orientalism을 분석하고 동·서양 냉전체제 종식 이후 동서양 문화의 융합에 세계 학자와 예술가들의 관

심이 고조됨에 착안하여 서양과의 교류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 특징이 드러나 있는 중국 당대의 예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 당대의 예술적 특징을 현대 복식에 도입함으로써 새롭고 이국적인 라인을 전개시켜 동·서 문화의 융화를 가져온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1. 연구목적

복식은 어느 시대에나 문화와 사조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룬 사상과 예술이 복식에 반영되어, 복식은 문화의 일 단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활의 어느 면에서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없는 지금, 국제화는 필수조건이며 타문화와의 융합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복식디자인 개발에 있어 문화적 특성에 따른 복식사적 연구와 현대 패션의 흐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화는 자체의 전통을 이으며 외부 문화와의 교섭을 통해 새로운 것을 수용해서 또 다른 문화를 이룩하므로 각 문화의 독자적인 특수성과 국제적인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유사 이래 동·서양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고 인류 3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실크로드 지역은 국제적인 보편성과 각 민족의 오리엔탈적인 특수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당대예술에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터키 등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통합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동양적 문화와 오리엔탈 지역의 민속의상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 현대 오리엔탈리즘 복식의 양상이므로 당대의 예술을 서양복식에 도입하여 동서양 문화의 융합을 가져온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총체화를 가져오게 된 특성을 연구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대의 예술을 현대 복식에 도입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하여 세계화와 융합화의 특성을 지닌 현대 문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연구를 통

해 동양과 서양의 fusion에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과 내용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당대 예술을 고찰하였으며, 복식에 반영된 당대예술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 문헌과 고미술 문헌, 최신 해외 패션잡지를 분석하였다.

당대 예술품의 이론적 고찰은 실크로드 문화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예술사적 의의를 살펴 보았으며 특히 장식미술과 도기, 회화를 색채와 조형성, 문양 등으로 분류하여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당대 실크로드 문화의 특성이 드러난 당상채와 장식미술, 궁정화, 고분벽화 등의 유물과 고서를 조사하고 도판 분석에 그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문화사, 회화사 및 실크로드 미술론집, 고고학 문헌의 연구를 병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당대의 역사적 배경

육조시대의 불안한 시대적 상황을 통일한 수(隋)왕조는 오랜 전쟁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어 폭동을 일으킨 백성들과 지방호족인 李氏가 반란에 합세하여 멸망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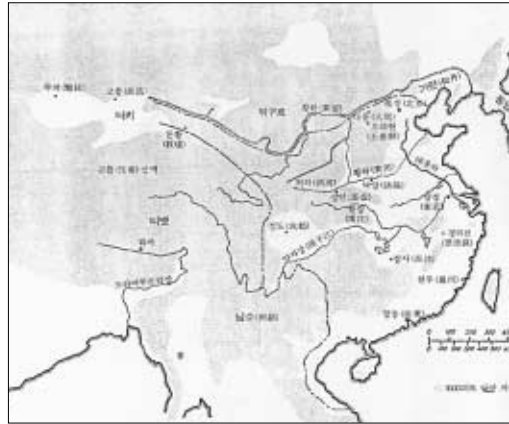
617년 이연(李淵)은 장안(長安)을 함락하였고 다음해에는 당(唐)왕조의 첫 번째 황제로 권좌에 올랐다. 626년에 그는 그의 둘째 아들 이세민(李世民)에게 양위하였는데 당시 26세의 나이에 태종 황제가 된 이세민은 그 후 1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 태종은 649년에 죽을때까지 쿠차와 호탄 등 번영하는 중앙아시아의 왕국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한반도를 정복하기 시작했으며, 티벳과는 왕실간의 혼인을 통해 친교를 맺었으며, 또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푸난, 참파 왕국과도 유대를 맺었다.

당시의 수도 장안(長安)은 그 규모나 장려함에 있어서 비잔티움에 필적할 만한 도시가 되었다. 장안은 가

로 96km 세로 112km의 격자형(格子形)으로 설계되었고 북쪽 지역에는 관청 건물들과 황실의 궁전이 있었는데, 궁전(大明宮)은 후에 서늘하고 덜 봄비는 도시의 동북쪽으로 옮겼다.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 그리고 터키인, 몽고인, 신라인 등이 활보하였으며 외국인들은 그들 고유의 신앙도 들여왔다. 이 외래 종교는 전에 없던 종교적인 관용과 이국적인 것에 호기심을 갖는 분위기 속에서 번성하였다. 태종은 개인적으로 도가(道家) 사상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유교를 장려하여 행정체계를 강화하였다.

불교사원 이외에도 장안에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사원, 경교(景敎)의 교회가 있었고 8세기 중엽 이후에는 회교(回敎) 사원도 세워졌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미술은 외국인으로 들끓었던 장안의 거리처럼 외래적인 이국적 소재들로 가득하다.

당이 누렸던 백년에 걸친 국내의 평화와 번영, 국외에 떨쳤던 위세는 이세민의 치적(治績)에서 뿐만 아니라 그를 계승한 두 명의 왕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649년에 왕위에 오른 고종(高宗)은 나약하고 자비심 많은 사람이었고, 후궁으로 그를 뒤에서 조종했던 측천무후(測天武后)는 683년에 그가 죽자 스스로 황제를 자처했다. 그러나 잔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건한 불교신자였던 그녀가 82세 때인 705년에 강제로 퇴위 당할 때까지 유가(儒家) 재상들은 충성스럽게 그녀를 보좌하였고 그 20년 동안 나라는 안정되고 평화로웠다. 7년 후에 제위를 물려받은 현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에 궁정에 군림하니, 그 시기는 하르샤(Harsha)왕, 치세의 굽타 왕조나 로렌초 드 메디치(Lorenzo de' Medici)가문이다스리던 피렌체에 비할 만 하였다. 태종처럼 현종도 유교적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장려하였으며 754년에는 한림원을 설립하였다. 조셉 니담(Joseph Needham)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유럽에 있던 어느 학술원보다도 거의 천 년이 앞선 것이었다. 불교 사원을 건축하고 꾸미는 데 사용되지 않은 나라의 온갖 부와 재능이 모두 현종의 궁전과 왕실, 그리고 그의 총애하는 학자나 시인, 화가, 연극과 음악, 또한 그의 악대들과 그가 사랑했던 양귀비에게로 집중되었다. 몽고 혹은 퉁구스 계라고 하는 장군 안록산은 양귀비의 눈에 들어 현종의 신임을 받게 되



<그림 1> 실크로드 지역의 당대 중국 영토p.3 1)

었는데 돌연 755년에 반란을 일으켜 황제와 신하들은 장안을 도망쳐 나왔다. 당시 나이 70을 넘긴 현종은 그를 수행하고 가던 병사들의 요구에 못이겨 양귀비를 넘겨주었고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교살하였다. 그 후 현종의 아들인 숙종(肅宗)의 노력으로 반란이 진압되었고 나라는 겨우 다시 일어나 9세기 초에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력이 쇠퇴하여 제국의 영광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으며 당 왕조는 서서히 쇠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751년에 중앙아시아에 있던 당의 군대는 서쪽에서 진격해 오는 회교 국가의 군대에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지배하에 있던 투르키스탄 지방은 영원히 회교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고 말았다.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아랍은 7세기에 중국과 서방을 이어주는 육로를 제공하던 개화되고 번창한 일련의 왕국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난폭한 몽고군대에 의해 끝이 났다. 서방 세계와의 접촉은 남쪽 항구들을 통한 해로(海路)에 의해 지속되었다. 광둥과 다른 남쪽 항구의 부두에는 한인과 이방인들이 평화스러운 번영 속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879년 황소의 난(亂) 때 외국인들이 대량학살됨으로써 그러한 번영도 끝나고 말았다.^{1) 2)}

2 당대의 문화적 배경

당대의 부와 영토, 문화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

다. 실크로드를 통한 서양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국적인 문화를 지닌 서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서양의 복식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전반이 중국에 영향을 끼쳤다.

중세 중국에서 관습과 규범에 의해 문화가 규제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의 중국 남녀들은 이국풍 패션을 도입하였다. 여자들은 머리모양과 복식, 화장 까지 서양인들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당나라 여인들은 서양의 남성복과 여성복식을 착용하였고, 외국인들의 복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패션의 변화와 사치스러움을 즐기기까지 하였다. 당의 여인들은 또한, 그 시대의 사회적 규제 속에서 외국 복식 착장을 창의력과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제국은 중국 문화 안에서도 높은 수준의 문화로 그려지고 있다. 영향력 있는 왕권을 지닌 황제와 막대한 경제력, 그리고 광활한 영토의 확장으로 중국은 번영과 국제적인 권력의 막강 시대를 열었다. 이 시대는 오랫동안 정부 권력이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한 안전세에 의존하였고, 나라는 정립된 관료 정치에 의해 운영되고 강력하며 잘 훈련된 군대는 끝없이 펼쳐진 국경을 따라 평화를 유지했으며 제국의 국민들은 높은 생활 수준을 즐겼다.

당대는 시와 예술, 그리고 과학에 있어 황금기로 여겨진다. 황족의 주거지이며, 정치와 상업 활동의 중심지인 수도 장안은 백만 인구가 넘는 중세의 가장 큰 국제적인 도시였다. 많은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들을 포함한 도시의 주민은 다양하고 국제적이었다. 장안의 섬세한 국제적 문화는 황화강 평야의 중국 도시들로부터 진행되어 중앙아시아의 산과 사막을 지나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지중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실크로드 경로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천 년 넘게 계속되어진 이 길은 무역과 여행, 군사 정복 그리고 중국과 서양 사이의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루었다. 중국은 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실크(비단), 수공예품, 약초 등을 수출하였으며, 비취(옥), 말,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회교등의 외래종교를 받아들였다. 실크로드를 따라 이루어진 여행, 전쟁, 무역활동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었다. 당의 부와 화려한 문화는 무역과 실크로드를 통한 외국인들과의 접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비록 사상, 율품,

기술 등이 몇 세기를 거치는 동안 서양 국경을 건너 중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당문화는 외국의 문물을 여과하여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당의 통치자들이 확고한 그들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외국인 조상을 가진 지배권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의 영향은 많고 다양하였다. 장안의 부유층은 터키 음식을 먹고 위그르(Uyghur) 음악을 들으며 소구드인(Sogdian)의 춤을 감상하고, 인도의 여인을 그리고, 페르시아 보석으로 치장하였다. 심지어, 당대의 한 왕자는 중국어보다 터키어를 더 좋아하고 양모로 만든 막사에서 잠을 자는 것에 비난을 받기도 했다.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과격한 운동인 폴로게임은 학생과 황족, 아이들, 궁녀들 사이에서도 인기있는 경기였다. 8C 장안 지역의 무덤 벽화에서 젊은 여성이 외국인 복장을 하고 말안장에 앉아 타구용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 선조의 직조와 주조 기술은 특히 페르시아의 공예기술에 의해 더욱 풍부해졌다.

진흙 틀에 브론즈를 채우는 그들의 전통적인 기법과 돌을새김(granulation-오톨도톨하게 표면처리를 함), 망치질, 금속절단술, 노천굴, repoussé(쳐내는 세공) 등의 공정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외국의 기술들을 첨가하였다. 중국 여인들이 즐겨 가지고 다녔던 전통적인 청동 거울은 새로운 기법의 첨가로 변화되었다. 서양의 동물과 꽃무늬로 장식된 청동 팔엽 거울은 repousse와 은도금으로 제작되었다.(그림 2)

당여인들의 머리장식 또한 외국의 금속 작업의 영향으로 디자인과 구성이 섬세해졌다. 주방(周肪)의 작품에서 궁녀들이 자신의 머리에 정교하고 섬세한 세공을 한 금속 장식을 꽂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중국의 위대한 유물의 하나인 비단은 서양 직물의 도입 이후 문양과 직조에 있어 최고조에 이른다. 진주로 둘러진 동근 메달 모양의 중앙에 신화적인 동물을 묘사하고 있는 페르시아 디자인은 부유층 여인들에 의해 비단의 문양이 되었다. 특히, 두 마리의 새가 마주 보고 있는 문양이 들어 있는 비단은 8C 어린아이의 바지를 만들 때 사용되었다.

이렇듯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대제국을 건설한 당나라는 눈부신 대외 진출에 따라 동서교류가 크게 성

황을 이루어 문화적으로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³⁾

3. 당대의 예술 작품

1) 장식미술

당대(唐代) 공예의 걸작품들은 무덤 속에 부장되었으며 가끔은 다른 이유로 매장되기도 하였다. 1970년 금은 그릇들과 여러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는 두 점의 항아리가 하가촌(河家村)에서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756년 안록산의 난을 피해 피난을 떠나면서 묻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장 훌륭한 작품 가운데는 금박의 돌을무늬 세공으로 앵무새와 작약꽃을 장식한 뚜껑 있는 항아리가 있다.<그림 17>⁴⁾

그러나 이것들 모두를 합한다 해도 일본 정창원(正倉院)에 있는 소장품들만큼 찬란하고 정교한 당대 장식미술에 대한 압도적인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756년 여제 고건 천황은 죽은 남편인 쇼무 천황이 생전에 수집했던 보물들을 나라에 있는 동대사(東大寺)의 대불(大佛)에 헌납하였다. 이 보물들은 다른 것들과 함께 정창원(正倉院)이라 불리는 보물창고에 넣어져 오늘날까지 사실상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왔다. 이 놀라운 소장품들 가운데는 나전(螺鈿), 거북껍데기, 금은 등으로 꽃이나 동물 문양을 상감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옷칠을 한 가구류와 악기, 놀이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랍 세계에서 온 유리그릇, 은쟁반, 주전자와 물병, 거울, 비단 자수, 무기, 도자기, 지도, 그림, 서예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들의 대부분이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 혹은 중국 작품의 모사품이라고 가정할 때 중국의 공인(工人)들이 얼마나 외래의 형태와 기법을 잘 숙지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 왕조 때 이르러 가치를 발휘한 금은 세공술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당대까지는 동래(東來)의 은세공이 대부분 청동기의 도안에 의하여 크게 지배되었지만, 근동(近東)의 영향을 받은 후로 그러한 경향에서 해방되었다. 정창원에 있는 두 개의 큰 사발과 같은 몇몇 은그릇들은 주조(鑄造)된 것이지만 귀금속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얇은 금속판을 함께 땜질하여 앞뒷면을 만듦으로써 종종 적은 재료를



<그림 2> 처내는 세공을 이용하여 부조 장식한 청동거울, 포도와 동물 문양으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음. 8C 뉴욕 Myron S. Falk 부부 소장

가지고도 육중한 외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금속의 앞뒷면에 모두 도안을 그리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굽달린 잔이나, 앞 장식의 사발, 동물문양이 돌을새김된 납작한 접시, 그리고 팔각형의 컵과 같은 형태들의 대부분은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것이다. 풍성함과 섬세함을 조화시킨 전형적인 당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장식에는 동물이나 인물, 사냥 장면, 꽃과 새, 식물의 소용돌이 문양이 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문양들은 일반적으로 돌을새김이나 선각(線刻)으로 되어 있고, 두들겨서 만든 작은 원들이 바탕 위로 돋보이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사산왕조의 금속공예술에서 차용된 기법이다. 또한 당 왕조의 사치스러운 취향은 거울의 뒷면을 금이나 은으로 도금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의 추상적이고 신비스러운 도안은 이제 더욱 일반적인 의미로 길상(吉祥)을 상징하게 된 풍성한 장식으로 대체되었다. 은이나 진주로 상감되거나 부조로 조각된 부부애(夫婦愛)의 상징들, 몸을 휘감은 용, 봉황, 새와 꽃들이 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창원에 있는 아름다운 두 개의 동경(銅鏡)에는 구름에 걸린 맑게 갠 산봉우리와 선녀나 신선(神仙) 및 다른 전설적인 존재들이 배치된 산수화를 담고 있어서 한 대(漢代)의 상징주의적인 면을 유지하고 있기도 했다. 카만(Schuyler Cammann)에 의하면 짧은 시기 동안 극도로 유행했던 “사자와 포도” 도안에는 마니교의 상징주의 영향이 엿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이 도안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843~845년에 있었던 외국 종교에 대한 억압과 함께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⁵⁾⁶⁾⁷⁾

2) 도기

당의 도자기 또한 외국의 형태와 소재를 많이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금속 물병이 도기를 똑같이 모방하여 만들어졌는데 때때로 얼룩덜룩한 반점 모양의 초록색과 갈색의 유약 아래 부조(浮彫)로 도안을 새겨넣기도 하였다. 불모양의 술잔은 고대 페르시아 형태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파르티아의 페르시아와 시리아의 푸른 유약을 칠한 도기에서 볼 수 있는 둥근 여행용 물병도 중국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포도를 따는 소년들, 춤추는 사람, 연주거나 사냥 장면들이 다소 거칠게 부조로 장식되어 있다.

중국의 도기 중에 그리스에서 유래한 양손잡이가 달린 헬레니즘 적인 향아리는 본래의 정적(靜的)인 대칭미는 상실하였으나 장난스러운 용 모양의 손잡이나 위로 들어올려져 가볍게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외형선, 거의 유연하게 유약이 부러진 방식 등 이 모든 것들이

손이 닿기만 하면 점토가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중국 도공(陶工)들의 솜씨를 보여준다. 당대는 중국의 도자사에 있어서 그 기형의 역동적인 아름다움과 채색 유약의 개발 그리고 자기의 완성기로 주목할 만하다. 청녹색의 얼룩이 있는 백자가 이미 북제시대의 북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당의 아름다운 흰색도기는 때때로 동, 철, 코발트와 무색의 납 규산염을 섞어서 청록색에서 황갈색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색채를 만들어낸 다색 유약으로 칠해져 있다. 이 유약은 흰 분장토 위에 이전보다 훨씬 얇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미세한 잔금이 가있고, 바닥 부분에서는 양이 적어서 고르지 않은 선을 보이고 있다. 접시는 나뭇잎이나 연꽃 문양이 찍혀져 있고, 채색 유약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유약은 선각(線刻)으로 중심 문양에만 한정되어 칠해진 반면 다른 곳은 유약의 색들이 서로 섞이기 쉽게 되어 있다. 화려한 효과를 좋아하는 당대의 경향은 흰색과 갈색 점토를 함께 섞고, 투명한 유약으로 그릇에 칠해서 만드는 대리석과 같은 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릇의 몸체는 사기질로 되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발과 화병 가운데는 때때로 올리브 녹색의 유약 아래 꽃과 식물 모



〈그림 3〉 약사를 태운 낙타. 삼채도기. 섬서성(陝西省)서안(西安)분묘 출토 8C



〈그림 4〉 무용수와 용을 부조로 장식한 삼채물병. 8C 토론토.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소장.

양을 틀로 찍거나 새겨서 장식한 것도 있다. 거의 순백에 가까운 백자가 7세기 초반에 하남성의 공현(鞏縣)에서 만들어졌으나 이에 못지 않게 보다 희고 더욱 섬세한 또다른 당의 자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8세기 후반의 시인인 육우(陸羽)가 저술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경(茶經)에서는 찻잔으로는 어름이나 옥에 비길 만한 월주요(越州窯)나 눈이나 은처럼 새하얀 형주요(邢州窯)를 사용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⁷⁾

오늘날 우리가 즐겨 감상하는 대부분의 당대 도자기들이 수집가들의 즐거움이나 일상적인 용도로 인해 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무덤의 값싼 부장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그것이 지닌 소박한 매력과 활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대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무덤들 속에 넣어 있었던 많은 수의 도용들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도용은 불과 몇 cm크기의 동물이나 장난감으로부터 거대한 말, 박트리아의 낙타, 무인, 기두(騎頭) 혹은 벽사(辟邪)라고 불리던 공상적인 진묘수(鎮墓獸)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또한 도용 가운데는 정렬한 관리, 하인, 춤추는 여자들이나 악사들 등 매혹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그 중에는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말을 타거나, 심지어 격구를 하기도 하였다.^{8) 9) 10)}

3) 회화

(1) 궁정화

당대 대표적인 화가로 손꼽히는 염입본(閻立本)이 그린 <역대 제왕도>는 각 왕조마다 중요했던 황제들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돈황 벽화의 정도에 있는 황제와 염입본이 궁정에 그린 황제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5, 6백여 년간 인도의 불교 회화를 흡수하던 과정이 마침내 결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인도의 불교 회화는 당나라에 이르러 중국의 궁정화와 하나로 결합되어 어떠한 차이점도 없게 된 것이다. 염입본은 당대 태종 시대의 화가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 대부분이 당태종과 관련되어 있다. <역대 제왕도>는 13명의 제왕을 그렸는데, 모두 몸집이 크고, 양쪽 어깨가 벌어졌으며, 옷소매

가 넓고 크다. 그가 그린 <보련도>는 당태종이 641년에 문성공주를 토번(吐蕃)의 국왕인 송젠 감포에게 정략적으로 시집보낸 일을 그린 작품이다. <보련도>(寶輦圖)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받쳐들어 매우 공손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외교부의 의전실과 비슷하다. <직공도>(職工圖) 또한 그의 중요한 작품으로 소수민족과 외국의 사신이 장안에서 공물을 바치는 상황을 묘사했다. 당나라 시대의 궁정 화가는 언제까지나 강력한 국력을 떨친다는 뜻으로 <직공도>를 그렸다고 한다.

염입본과 같은 궁정 화가 이외에도 민간 화가가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불당의 벽화를 주로 그렸지만 제왕과 귀족의 생활을 그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간 화가였던 오도자(吳道子)는 황제에게 초빙되어 궁정 화가가 된 경우이다. 그는 궁정을 위해 일련의 역사화를 그렸는데, 대부분 교육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종교 화였다. 그림 속의 인물은 모두 선으로 묘사했고, 그 선은 매우 생동적이면서도 힘이 있다.¹¹⁾

당나라 시대의 예술 가운데 여성을 제재로 삼은 작품이 매우 많은데 당대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태종 시대에는 나라의 위세가 강성했기 때문에 궁정 화가의 역할 또한 정치 활동을 표현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현종 이후 나라의 힘이 쇠약해져 <보련도>나 <직공도> 등의 그림 대신 궁정 여성들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그렸던 화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궁정 여성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림 5> 주방의烝事녀도

을 그렸던 화가 중 대표적인 장훙(張萱)의 <과국부인 유춘도>는 당 현종 때, 양귀비 자매가 봄날 밖에 놀러 간 상황을 묘사했다. 그에게는 또한 <도련도>라는 이름난 작품이 있는데, 현재는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도련도>는 당나라 시대 공녀들의 일상생활을 평화롭게 표현했고, 당나라 시대 공녀의 복장과 우아한 얼굴색을 정교하게 묘사했다.

또 다른 유명한 화가인 주방의 <잠화시녀도>(簪花侍女圖)는 궁정 여인들의 한가로운 생활을 묘사했다. 이 작품은 당나라 시대의 공녀의 모습을 가장 전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화폭의 아름다운 색채는 궁정의 부귀함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더욱 돋구어 준다.

(2) 묘실벽화

최근 10년 동안 당나라 귀족의 많은 분묘가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무덤들은 규모가 매우 크고, 땅 위에서 살때와 똑같은 세계를 땅 밑에 계획적으로 전개해 놓았다고 해서 지하 궁전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지하 궁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오지로 만든 향아리, 비단, 흙으로 만든 사람 인형 등 당나라 시대의 진귀한 기물이 많이 수장되어 있다.¹²⁾

장회 태자의 묘실 벽화에 그려진 의장과 호위병들은 모두 위엄있게 생겼고, 얼굴 표정은 매우 엄숙하고 정중하다. 그리고 그들의 수염은 오도자 풍의 선의 특색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

오도자는 사람의 머리칼과 수염이 실제로 피부에서 나온 것처럼 그렸는데, 이 의장도에서 우리는 오도자가 그렇게 공들이고 애썼던 표현 기법을 체험할 수 있다.

당나라와 한나라 시대의 벽화를 비교해 보면 선이나 모든 구성 면에서 당나라의 인물화법이 한나라보다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벽화 창작에 이바지한 화가 또한 민간에 머물러 있는 단순한 공예가가 아니었고, 그들 대부분은 염입본과 비슷한 궁정 예술가였다.^{13) 14)}

2. 당대 예술품에 나타난 특성

1) 심미성(審美性)

역사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린 당대의 예술은 서역과

의 교류로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시대였으며, 이 시대는 궁중 중심의 귀족적이고 화려한 문화가 융성하였다. 그리하여 금, 은, 마노, 수정, 유리, 옥, 기물 등의 보석공예가 성행하게 되었다. 회화나 불상 등에 표현되어 있는 장신구들은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장식미술에 있어서도 상감과 부조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장식적 요소가 나타났다. 또한 문양에 있어 서구의 문화 유입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데 당 고유의 전통 문양과 서방의 문양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동서양의 다채로운 문화가 선보였다.²¹⁾

2) 현실성(現實性)

당대의 예술품에는 5세기의 무모하고 몽상적인 취향은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송대의 미술에서처럼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정일(靜逸)한 정신세계가 담겨있지도 않다. 명상은 있으나, 대승불교의 이상주의를 내세운 비현실적 의미가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주제였다. 생활 취미가 강하여 사실적인 상황의 묘사와 인물의 정밀묘사가 주를 이루어 작품에 생동감을 주었다.^{19) 21)}

당대의 예술은 그 제작 기술과 더불어 거기에 새겨진 무늬가 세련되었으며 상념적인 주제들의 신비로움을 현실화 해서 예술 작품의 경지에까지 승화시켜 어는 것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사실적이고 섬세하다.

3) 낙천성(樂天性)

풍요롭고 화려한 생활을 누렸던 당대의 예술품은 비교할 수 없는 활력과 위엄을 지니고 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성을 상징하는 보살과 여인상은 희망적이고 평화로운 시대를 반영하듯 미소를 띠고 있다. 남북조 시대의 엄숙하고도 교만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과는 달리 인정미와 친근감 있는 형상이 나타났으며, 더욱 자애롭고 여유로운 모습이 엿보인다.

4) 국제성(國際性)

동서문화의 교역로인 실크로드의 중심에 위치한 중국은 당대에 이르러 중국 문화를 중심으로 융합되어

국제성을 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서역의 그것이 유입되어 독특한 당대 문화를 형성하였다. 즉 당대의 독자적인 특수성에 서역의 국제적인 복합성이 결합하여 특수한 국제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III. 당대예술이 반영된 현대 패션

1. 현대패션에 나타난 당대 예술품의 디자인 요소

1) 색채

당대 색채의 대표적인 구분은 크게 紅, 黃, 靑, 綠, 白, 黑色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당대의 다양한 색채의 사용은 회화는 물론 도자, 목공예, 칠공예, 건축장식, 의류 등 그 용도 역시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변모를 보이면서 쓰여졌다.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가루로 된 분채(粉彩) 덩어리, 액채 등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졌으며 각종 색상이 혼합되어지면서 2, 3차색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명도를 조절하는 데



<그림 6> 당대의 주된 색채를 사용하여 단위형태를 조합한 작품. Tsumori Chisato, 2000 S/S Tokyo collection

번호	명 칭	계통색명	영문색명
1	石綠(석록)	light green	Malachite
2	藤黃(등황)	vivid yellow	Camboge
3	洋紅(양홍)	deep red	Carmine
4	翠(취)	bright green	Mint Green
5	石靑(석청)	bright blue	Bright Blue
6	白(백)	white	White Lead
7	黑(흑)	black	Lamp Black

는 흑색을 증강시킴으로서 자연스러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원료는 거의가 자연물로부터 채취되어져 장구한 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색채에 가깝게 보존되어지고 있다. 당 색채의 원료는 재료 상으로 크게 구분하여 광물질, 식물질, 금속류로 나뉘게 된다. 광물질과 금속류는 불투명하고, 식물질은 투명한 특질을 지니고 있고, 크게 紅, 黃, 靑, 綠, 白, 黑色으로 분류되며 다시 수십종의 색채로 나뉜다. 재질도 다양하여 가루, 덩어리, 액채 등의 형식을 띠며 만들어지는데 이 모두는 물과 아교질이 포함되어 지면서 그 농도나 각종 효과를 조절하게 된다.

당대의 채색은 명쾌하며 깊은 색을 사용하였고 채색의 중후함이나 천함을 막론하고 모두 조화롭고 우아하다.¹⁵⁾

특히, Tsumori Chisato의 2000 S/S collection에서 선보였던 소재는 단위형태의 조각들을 연결하여 동양적인 실루엣과 당대의 주된 색채를 사용한 작품으로 석청(石靑), 양홍(洋紅), 백(白)등의 색을 조합하였다.

2) 조형성

황실 능묘의 장식 조각 및 순장한 도자기 인형, 도기 등을 살펴본 결과 당대 예술의 조형성의 특징은 기법이 생동감있고 웅장하며 굳센 특징이 있다. 또한 씩씩하고 낙천적인 당의 기백을 재현하여 더욱 아름답고 장식성이 강하며 형상의 표현이 세밀하고 정확하였다.

도기의 형태와 장식에서 보여지는 율동감은 우아하며 곡선적이고, 풍성한 부피감을 느낄 수 있다. 자기의 모양으로는 배(杯), 반(盤), 완(碗), 분(盆), 관(罐) 등이 있었고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¹⁶⁾

배(杯)는 술, 음료수 등을 담은 잔으로 각이 진 팔각



<그림 7> 삼채물병 다채유를 뿌려 장식함. 8C 손잡이가 식물의 줄기모양으로 곡선적이며, 병의 목부분이 김. 8C¹⁷⁾



<그림 8> 도기의 리드미컬한 조형성을 엿볼 수 있으며, 역동적이며 경쾌한 곡선으로 생동감을 주는 작품. Dairees. 2000 S/S London collection



<그림 9> 당대 여인의 두식(頭飾)을 알 수 있는 토용. 중국. Xinjiang 박물관¹⁸⁾



<그림 10> 당대 여인의 두식을 응용한 hair style. Lapidus, 98, 99 F/W Paris collection

입구에 손잡이와 잔 받침이 있었다. 반(盤)은 소반, 예반, 쟁반등의 총칭이며 넓고 편평한 것이 특징이었다. 완(碗)은 사발로 입구가 넓고, 꽃잎 형태를 본뜬 것이 많았다. 분(盆)은 밑이 좁고 아가리가 큰 향아리를 말하고, 관(罐)은 술을 담는 향아리를 말한다.

도기와 장식조각, 토용등에서 볼 수 있는 비대칭적이고 유머러스한 느낌의 율동감과 공중에 떠있는 듯한 외형선으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2000 S/S collection에서 선보였던 Dairees의 작품에서 이러한 도

기의 조형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역동적이며 리듬감 있는 곡선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당대 여인의 두식을 응용하여 Lapidus는 높게 묶어 틀어 올린 hair style을 제시했다.

3) 문양

이전의 예술품에서 보여졌던 추상적이고 신비스런 도안은 당대에 이르러 더욱 일반적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양으로 변모하였다. 당대의 도안을 분석해

보면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자, 코끼리, 낙타 등 완구의 성격을 띠는 자기와 장식미술에 있어서도 외래문양인 포도, 연꽃무늬와 전통적인 문양인 용, 호랑이, 거북이 등을 잘 조합하고 변화시켜 당시기 예술풍격을 이루었다. 또한 보살상과 회화의 여인상에 나타난 화려한 새, 꽃, 식물의 소용돌이 문양과 묘실 벽화에서는 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은 비천도(飛天圖)의 구름 문양, 독특한 기하학적 패턴을 엿볼 수 있다.¹⁴⁾ <그림 11>의 Antonio Mara의 98년도 작품은 꽃과 포도 문양이 수 놓여진 자켓으로 동양적인 문양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었으며, Marella Ferrera는 당초 문양과 연꽃 문양이 들어있는 원 형태의 패턴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국적인 프린트와 독특한 장식으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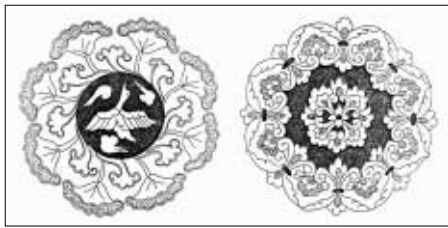
명한 Jean Paul gautier의 작품은 묘실 벽화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기하학적 패턴을 반영하였다.

2 당대예술이 반영된 현대패션의 특성

앞에서 살펴 본 당대 예술의 특성은 현대 복식에 있어 각각 장식성, 실용성, 역동성, 융합성으로 나타난다.

1) 장식성(裝飾性)

세기말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장식적 요소가 강한 성격의 복식이 등장



<그림 11> 당대의 장식품과 삼채 등의 문양. 연꽃, 작약, 새, 식물의 소용돌이 문양¹⁴⁾



<그림 14> 둔황 고분벽화의 내실 천정화, 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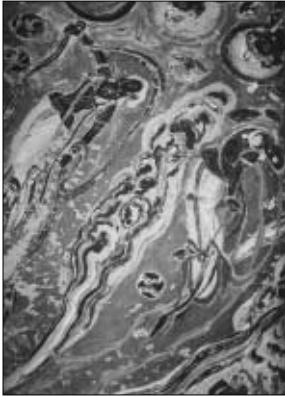
<그림 12> 동양적인 꽃 문양과 당대에 등장한 포도 문양이 수 놓여진 자켓. Antonio Mara. 98, 99 F/W Altamoda collection



<그림 13> 당초 문양과 연꽃 문양을 응용한 원 패턴으로 동양적인 모티브를 재창조한 작품. Marella Ferrera. 98, 99 F/W Milan collection



<그림 15> 미세한 면분할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문양이 독특한 스웨터, Jean Paul gautier, 98, 99 F/W Paris collection



<그림 16> 장희 태자 묘실 벽화에 나타난 비천도. 작가 미상, 7C말로 추정



<그림 17> 비천도에서 모티브를 얻어 독특한 곡선의 사용으로 신비스럽고 우아한 장식효과를 낸, Tsumori Chisato, 2000 S/S Tokyo collection



<그림 18> 향아리. 움직이는 손잡이와 뚜껑이 있고, 작약과 앵무새로 장식. 은을 두들겨 만들고 모양 부분은 금도금(金鍍金). 서안(西安) 하가촌(河家村)발굴. 8C



<그림 19> 흰색의 리넨 치마에 작약문양의 금박을 새겨 넣어 화려하지만 가볍지 않은 장식성을 보여주는 디자인. Dries Van Noten. 2000 S/S Paris collection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복식에 있어 럭셔리한 스타일을 제시해 주며 동양적인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 선보이고 있다. 화려함은 현대 패션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던 당대의 사람들처럼 각국의 문화가 융합되어 다채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다. 컬러풀 하면서도 깊고 아득한 내면을 표현하는 색상, 이국적인 느낌의 디테일, 독특한 문양의 현란한 프린트, 다른 문화권에서 얻는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과 현대 디자이너들의 풍부한 아이디어는 럭셔리한 패션을 지향하는 귀족적 취향의 스타일을 가져오게 하였다.

비천도에서 보여지는 신비스러운 구름 문양과 곡선을 모티브로 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보여준 Tsumori Chisato와 금도금 향아리를 그대로 치마에 옮겨 담은 듯한 Dries Van Noten의 작품에서도 풍부한 장식적 요소와 럭셔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2) 실용성(實用性)

당대 서양복식의 영향으로 소매통이 점점 좁아진

것이나, 말을 타고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남녀 모두 바지를 즐겨 입었던 것처럼 현대의 높은 생활 수준으로 사람들은 관념과 이상을 쫓기 보다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현실적인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현실을 중시하여 과장되고 추상적인 디자인보다는 패션에 있어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디자인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의 실루엣을 심플하고 간결하게 하였고, 모던한 라인의 전개를 가져왔다. <그림 20>과 <그림 21>에서 모던하고 과장되지 않은 실루엣을 이루는 디자인을 보면 당대 여인의 복식 실루엣을 모던하게 풀어내었으며 무리없는 겹쳐 입기 등으로 간결한 라인을 제시하였다.

3) 역동성(逆動性)

당대 복식에서 보여지는 드레이프성이나 예술 작품에 나타난 리듬감은 현대 패션에 있어 소재에 영향을 미쳤다. 부드럽고 드레이프성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를 왜곡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역동성은 소재의 특성에 기인한 우아하고 울



<그림 20> 높은 chignon을 착용한 여인상, 토기, 8C 중후반, 뉴욕, Courtesy of the Schloss Collection 소장



<그림 21> hair style 과 실루엣에서 모던함을 느낄 수 있는 동양적인 드레스. 슬리브리스 원피스로 실용성을 더하였다. Chanel, 98, 99 F/W altamoda collection



<그림 22> knee length의 원피스로 당대 복식을 새롭게 응용한 디자인. 도입한 이브닝 드레스 Jean Paul Gautier, 2000 S/S Paris collection



<그림 23> 당대 삼채여인 토용, 서안(西安)출토, 8C초

동적인 곡선으로 표현되어 현대 패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Franco Ciambella의 98, 99 F/W collection에서 우아한 드레이퍼리와 인체를 따라 흐르는 자연스러운 소재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Yukiko Hanai의 이브닝 드레스에서도 리드미컬한 선(線)과 위에 겹쳐 입은 가운데서 울동감을 느낄 수 있다.

4) 융합성(融合性)

교통, 통신, 미디어의 발달로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문화는 이제 독자적일 수 없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욱이 자민족의 문화만으로 패션에 영감을 받기란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타민족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수용 과정을 거쳐 각각의 문화를 융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화의 퓨전 현상은 각 문화의 영역과 장르의 경계를 없애고 타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낸다. 그리하여 지극히 서구적이거나 지극히 동양적일 수 없는 새로운 제 3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제 패션

에 있어 에스닉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민속복의 의미를 넘어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된 특성을 지닌 새로운 패션 테마로 대두되고 있다.

98, 99 Lapidus의 작품을 보면 모던한 라인의 자켓과 매치시킨 심플한 라인의 스커트, 머리의 조형성등이 서양과 동양의 믹스된 style을 보여준다. 그리고 Antonio Marra의 작품에서는 드레이프진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드레스에서 역동성과 실용성을 찾을 수 있으며, 동양적인 문양과 라인이 도입된 드레스로 동서 문화의 믹스를 보여주었다.

IV. 결론

당대는 중국 봉건 사회 발전에 있어 전성시대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함께 당대의 예술도 여러 면으로 전례없는 번영을 누린 시기였다. 당대 예술의 특징이라면 궁중 예술과 종교 예술이며 전자는 그 당



<그림 24> 우아한 드레이프와 섬세한 주름들로 울동감을 느낄 수 있는 이브닝 드레스, Franco Ciambella, 98, 99 Altamoda collection



<그림 25> 리드미컬한 드레이프의 우아함과 자연스럽게 가운을 걸쳐 입은 이브닝 드레스, Yukiko Hanai, 2000 S/S Tokyo collection



<그림 26> 모던한 라인의 자켓과 매치시킨 간결한 라인의 스커트, 머리의 조형성이 동서양의 mix를 보여주는 작품, 스커트의 기하학적인 원 형태의 패턴에서는 장식성을, 자켓에서는 실용성을 느낄 수 있다. Lapidus, 98, 99 F/W Paris collection



<그림 27> 드레이프진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드레스에서 역동성, 실용성을 찾을 수 있으며 동양적인 문양과 라인이 도입된 드레스, Antonio marra, 98, 99 F/W Milan collection

시 정치노선에 규합하여 문치(文治), 무공(武功)을 위해 제작된 미술 형식으로 궁정 생활을 반영하고 통치권자의 권위를 과시하였으며 후자는 불교 예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외에 외래종교인 도교예술을 확대하였다. 예술 발전 가운데서 주제의 다양함이나 풍격의 다양화, 기교의 개발 정도는 모두 그 전시대를 초월하여 중국 고대 미술 발전을 새로운 경지로 밀고 나갔다. 우선 종교 주제의 표현에 있어 현실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종교 조각상이 상당히 인간 특징에 접근하였고, 귀족의 종교 관념이 약해져 가는 것을 반영하였다. 귀족 분야 생활을 반영하는 시녀도(侍女圖)가 유행되기 시작하였고 산수, 화조, 그림도 상당한 진보를 보였으며 생활을 표현하는 화가의 능력도 크게 발전하였다. 화풍에서는 더욱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물 형상이 풍만하고 매우 아름다웠고, 색깔이

찬란하며 화려하여 적극적인 시대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이외에 당대에는 예술가와 인재가 많이 등장했다. 인물, 산수, 동물, 화조 등 여러 회화에서 모두 높은 성과가 있어 후세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무명의 민간 공예가들도 벽화와 채색 조각등의 면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각 공예 면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총체적인 예술의 특성은 귀족들의 미에 대한 심취와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대한 성찰, 적극적인 삶에 자세에서 느껴지는 현실성, 풍요롭고 평화로운 생활에서 발생한 낙천적인 감성, 서구문화와의 교류로 인해 당대의 독특한 국제적인 문화를 형성한 특성 등이 있으며 각 특성은 현대 복식에 있어 장식적 요소와 현실에 중점을 둔 실용성, 역동적이며 우아한 울동성, 서양 복식에 반영

된 오리엔탈리즘의 융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심미성→장식성 :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요소 반영
현실성→실용성 : 현실에 가까운 실용적이고 모던한 실루엣
낙천성→역동성 : 드레이프성 있는 소재에 기인한 자연스럽고 율동적인 라인
국제성→융합성 : 동서문화의 융합

1. 장식성: 당대 예술에 드러난 그 당시 사람들의 심미관은 앞서 말한 것 처럼 무역의 활성화와 귀족 중심의 생활, 풍요로운 생활수준으로 보석 세공과 주조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여성들은 보석으로 치장하였으며 외래의 영향으로 등장한 문양과 재료들로 화려함이 더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복식에 있어 장식성을 띄게 하였고 풍부한 장식성 요소들이 개발되어, luxury하며 낭만적인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Tsumori Chisato와 Dries Van Noten의 작품에서 이러한 장식성을 엿볼 수 있다.

2. 실용성: 현실 중심적이고 구체적인 세계관을 지녔던 당대는 사실적인 묘사와 보다 생활에 가까운 디자인의 예술품을 제작 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현대 패션에 간결하고 심플한 실루엣으로 반영되었다. Chanel과 Gautier의 이브닝 드레스에 도입된 동양적인 선의 간결함이나 모던함을 예로 들 수 있다.

3. 역동성: 생동감 있고 리드미컬한 선으로 표현되어진 당대 예술품들의 특성은 그들의 낙천적이고 힘찬 기상이 담겨있다. 이러한 특성이 현대 패션의 소재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스럽고 우아하며 율동적인 드레이퍼리를 만들어 내었다. Fraco Ciambella와 Yukiko Nanai의 collection에 등장한 이브닝 드레스에서 섬세한 드레이프와 자연스런 흐름을 볼 수 있다.

4. 융합성: 국제적 문화를 꽃피웠던 당대의 예술품에서 보여지는 동서 문화의 믹스는 현대에도 이어져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이루었다. 이는 패션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융합성은 독특하고 새로운 패션의 장르를 탄생시켰다. Lapidus와 Antonio Marra의 작품에서 동서양의 mix & match를 느낄 수

있으며 동양적인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은 모던한 라인의 전개가 인상적이다.

이상의 연구가 단순히 당대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연구한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진행될 패션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되고 복식디자인에 있어 새롭고 독창적인 모티브를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동서양의 fusion을 통해서 국제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패션 테마를 이루기 위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사 연구와 두 문화의 융합 작업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한명, 중국역사 (上), 서신원, 1997, p. 160.
- 2) 김명희, 중국 송, 당사연구-천자의 나라 천하의 문화-, 국학연수원, 1988, p. 51.
- 3) Valerie Steel & John S. major, China Chic-East meet West-, Yale University Press, 1999, p. 103.
- 4) 이규헌, 실크로드 미술, 설화당, 1997, p. 60.
- 5) Sullivan Michael, The Art of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20.
- 6) 장훈, 중국미술사 101장면, 가람기획, 1999, p. 11.
- 7) 蔣勛, 中國美術史, 人民美術出版社, 1993, p. 83.
- 8) 아키라 미야지. 요코 모타메디, 장대한 동서문명 교류의 도가니, 한국일보사, 1990, p. 3.
- 9) NHK 취재반, 실크로드, 서린문화사, 1987.
- 10) 鄭圭管, 中國美術全集, 人民美術出版社, 1988, p. 10.
- 11) j캐럴, 중국회화사, 설화당, 1985, p. 11.
- 12) 이규헌, 실크로드 1-2, p. 23.
- 13) Contemporary Chinese Painting -A Exhibition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w York Asia Society, New York, 1984, p. 18.
- 14) Rowley George, Principles of China Painting, Princeton, 1959, p. 13.

- 15) 최병식, The historical Science of Oriental Art, 예서원, 1993, p. 24.
- 16) 주지기, 중국미술사, 정현사, 1995, p. 70.
- 17) 한국브리테니커 대 백과사전-당삼차-
- 18) 中國美術 II, 東京, 說話社, 1974, p. 20.
- 19) 中國工藝美術史, 中央工藝美術學院, 北京, 1983, p. 3.
- 20) Christis, Fine Chinese Paintings and Calligraphy, New York, 1987, p. 22.
- 21) 徐復明, 中國藝術精神, 淑大中國學研究, p. 3.